

## 21세기 태평양시대 준비한 선각자

김학준 (단국대학교 이사장·정치학 박사)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백6주년을 맞아 고하의 생애를 「21세기 태평양 시대와 남북통일 시대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 선각자」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우리가 고하를 평가할 때는 그의 항일민족운동과 언론활동, 그리고 해방 직후의 짧았던 건국활동에 초점을 맞췄을 뿐인데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그가 이미 70여년 전부터 태평양 시대의 도래를 예견했으며 태평양 시대에 우리 겨레가 살길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주목을 받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선 고하가 1925년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기독교청년대회에 참석한 뒤 귀국해 동아일보에 발표한 논설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12회에 걸쳐 연재됐던 이 대논설은 문장도 명문이거니와 논지도 탁견이었다.

고하는 우선 세계정치와 세계경제의 중심이 19세기에는 지중해 일대에 머물렀으나 20세기에는 대서양 일대로 이동했음을 지적한 뒤 21세기에는 태평양 일대로 다시 한번 이동할 것임을 예언했다. 21세기가 태평양 시대가 될 것임을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말하고 있으나 71년 전에, 더구나 지식과 정보가 지극히 제약됐던 식민지 조선의 35세 청년이 예언했다는 것은 확실히 선각자적 혜안이었음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고하는 이어 20세기가 끝나기에 앞서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반드시 충돌할 것이며 그 충돌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세계의 운명은 물론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을 예고한 뒤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한 전망은 고하의 정치적 신념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민족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 당시로서는 물론이지만 그 뒤에도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미래의 물결」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항일민족운동의 시기에 그럭저럭 해방 3년의 시기에 양심적이면서 민족적인 지식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꺼이 공산주의자가 됐으며 월북의 길에 올랐다.

이렇게 볼 때 고하가 이미 1920년대부터 「우리 겨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은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북한이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가로 빈곤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음에 반해 한국은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가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걷고 있음을 생각할 때 고하의 선각자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느끼게 된다.

21세기 태평양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 지역의 「중심국가」 또는 「일류국가」로 등장할 것으로 누구나 기대하고 있다. 그러한 국민적 기대속에서 「조선은 아시아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시를 새삼스럽게 애송한다.

그런데 이 시가 고하를 통해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고하가 지난 1929년 타고르에게 부탁해 동아일보에 발표하게 함으로써 이 시는 탄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한민족의 주제가」가 될 수 있는 이 희망과 격려의 시의 산파로서 고하는 새롭게 자리매김을 받을 수 있겠다.

21세기 태평양 시대는 우리 겨레로서는 남북통일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것과 관련해 지적돼야 할 것은 고하가 이미 1920년대 이후 일관되게 민족통일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우리 겨레의 국조인 단군왕검을 떠받드는 작업을 동아일보를 통해 여러 방면에서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최근에 북한이 단군을 북한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의 근거로 활용하는 일종의 상징조작과 관련해 중요하게 토론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은 단군릉을 거창하게 개건한 뒤 단군의 법통이 고구려의 동명성왕으로 계승됐고 고구려의 법통이 고려의 왕건으로 계승됐으며 고려의 법통이 김일성에게 계승됐고 김일성의 법통이 김정일에게 계승됐다는 식으로 민족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왜곡의 연장선 위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단군조선의 법통을 이어받은 북한에 의해 성취돼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70여년 전부터 단군을 민족 통일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봉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은 고하의 식견이 탁월했음을 말해준다. 그가 동아일보를 통해 단군릉 중수작업을 추진한 1934년으로부터 꼭 60년이 지난 1994년에 김정일이 단군릉 개건 작업을 끝내고 큰 기념식을 가졌다는 것은 북한이 고하의 식견에서 배웠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21세기태평양 시대, 21세기 통일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각도에서 고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사로 재조명될 수 있다고 하겠다.

#### **김학준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이사장, 시립인천대학교 총장, 동아일보 사장,

동아일보 회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역임.

현재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및 단국대 우석한국영토연구소 소장.